군민의 꿈과 행복을 열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5분 자유발언



이 현 호 의 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방안 및 대책수립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박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0일 앞으로 다가온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먼지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질소 및 황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생성물질입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인 날 1시간 야외 활동을 한다면 디젤차(2,000cc)매연을 3시간 40분 정도 흡입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코와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를 타고 온 몸으로 침투하여 각종 장기에 축적되어 건강에 큰 문제가 된다고 발표한 물질로 주민 각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남의 경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는 총 8회 발령되었고, 지난 3월 1부터 5일까지 5일 연속 “매우 나쁨” 수준이 지속되어 심각한 미세먼지 노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도 광역지자체 나름의 비상저감조치로 충남형 대기질 분석 진단시스템을 통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예측분석을 함으로써 긴급 재난문자 발송,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비상저감 조치 권고 및 협약을 통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배출시설중 석탄을 원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상한 제약 대상 20기중 15기가 태안, 당진, 보령에 집중되어 있어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2위 수준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약자가 많은

만큼 저감대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2월 28일 17시 10분 수치 81㎍/㎥으로 비상저감조치 최초 발령이후 3월 1일 106까지 치솟아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에 긴급문자발송,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소각시설 가동률 하향 및 연소 공기량 조정, 살수 차량 운행을 강화하였으며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 속 올바른 미세먼지 대처법,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법 등 좀 더 생활 밀착형 주민행동 요령 홍보 및 교육이 아쉽습니다.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경로당, 학교, 각종 교육장에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의 차이점, 보건용 마스크가 95개사 543개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시판되고 있는데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는 숫자가 클수록 차단효과가 좋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세탁이나 재사용은 불가하고 수건이나 휴지를 덧댄 후 사용하는 것은 밀착력이 감소해 차단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가급적 착용 후에는 만지지 말아야 하는 등 다양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생활 밀착형 교육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점검, 산불진압차량과 재난예비비를 활용한 살수차 운영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영세사업장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비용 지원,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선박 육상 전원공급 장치 설치, 선박 연료 황 함량기준 강화,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공해장치 부착 지원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촘촘하고 장기적, 단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등 큰 틀에서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저감노력은 몇몇 공공기관이나 사업장만의 일방통행보다는 서천군민, 충남도민, 나아가 전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우리군에서 시발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미세먼지의 피해자면서 가해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앞장서서 전기 한등 끄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에너지 절감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우리의 숨 쉴 권리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